

보성군,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도시' 본격 시동

상반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성형 재생에너지 중장기 로드맵 수립

보성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군은 상반기 중 '보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발전 가능 입지 발굴, 발전원별 추진 전략, 주민 참여 사업 모델, 계통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득량만 간척지와 보성강, 주암호 등 풍부한 수자원과 일사량 등 지역 여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군 소유 주차장과 유희부지 등 공공자산도 발전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이 희망하는 발전 가능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핵심 정책사업인 '햇빛소득 마을사업'을 적극 도입해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환원해 안정적인 주민 소득원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 환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주민 소득원"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은기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국가 예산 신청을 위한 주요 사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위원장은

함평군,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안 확정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농업인 단체장·식품산업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함평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군은 최종 ▲농촌개발분야 10개 사업(313억) ▲식량원예분야 17개 사업(344억) ▲유통분야 4개 사업(111억) ▲축산분야 2개 사업(104억) ▲임업분야 3개 사업(16억) 등 총 36개 사업, 888억 원의 예산 신청안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확정된 예산 신청안을 전라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향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의회에서 제안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7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고흥 여행 길잡이, 공식 관광 SNS에서 만나

명소·축제·맛집·이벤트까지... 고흥 관광 SNS에서 확인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공식 관광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를 통해 고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공식 관광 SNS를 통해 ▲주요 관광 명소 및 숨은 명소 소개 ▲계절별 축제와 지역 행사 안내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정보 ▲관광지별 체험 프로그램 안내 ▲각종 참여형 이벤트 소식 등 고흥 관광 전반에 관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관광객들이 SNS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공식 SNS 팔로우를 통한 실시간 정보 수신이다. 고흥군 관광 SNS를 팔로우하면 축제,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둘째, 방문 전 최신 게시물 확인이다. 연휴 기간의 관광지 운영 현황, 기상 상황에 따른 행사 일정 변경 등 긴급 공지 사항은 SNS를 통해 즉시 안

내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셋째, 저장 및 공유 기능을 활용한 여행 편의 제고다. 가보고 싶은 명소나 음식점 콘텐츠를 저장해두면 여행 일정 계획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행사 및 이벤트 일정의 사전 확인이다. 계절별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정보가 게시되므로 관심 있는 일정을 미리 확인하면 더욱 알뜰하고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다섯째,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현장 분위기 파악이다. 관광 홍보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를 통해 방문 전 현장의 주요 관광 자원을 미리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어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공식 관광 SNS를 통해 관광 명소, 축제, 행사, 맛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흥을 방문하기 전 SNS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여행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삼향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 운영

무안군 삼향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오창덕)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집 안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악취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한 부모 조순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복지기동대원, 새마을지도자회,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동양환경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슬땀을 함께 흘렸다.

오창덕 기동대장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영광군,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총력

영광군은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영광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설 명절 및 해빙기 대비 안전수칙 지키기'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화재·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군청 안전관리과와 영광군 안전보안관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화재, 교통사고, 시설물 붕괴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작은 안전수칙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2026 구례잔수농악 공개행사 성황리에 개최

전남 구례군은 2월 19일 구례 신촌마을에서 2026 구례잔수농악 공개행사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례잔수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통에 따라 정월 초닷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만굿을 시작으로 마당밧이, 판굿까지 이어져 주민들과 함께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다.

구례잔수농악보존회 관계자는 "매년 오방의 당산을 돌며 치는 당산제만굿과 가정의 액을 물리치는 마당밧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판굿을 통해 전통 농악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